

# 국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of Community Outreach Services in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황동준 (Dongjun Hwang)\*\*

이종욱 (Jongwook Lee)\*\*\*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국립대학 도서관과 북미 주립대학 도서관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10개 국립대학과 북미 10개 주립대학 도서관 웹사이트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국내 대학도서관 담당 사서 8명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는 꾸준히 확장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서비스 영역은 시설 및 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문화 프로그램, 기관 협력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와 함께 업무 과중, 대학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특히 북미 주립대학 도서관은 개방성과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활발한 연계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국립대학 도서관은 제한적 운영과 일회성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연계 범위와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도서관 간 자원 공유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정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강화와 같은 운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ommunity engagement services provided by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and state university libraries in North America and explores strategies for their enhancement. It involved a review of library websites and literature from ten institutions in each region, along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Korean university libraria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community engagement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have steadily expanded, and their importance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Key areas of service include the use of library spaces and data, educational support, cultural programming, and institutional collaboration. However, the expansion of services has also led to challenges such as increased workloads, negative perceptions among university members, and shortages of funding and personnel. North American libraries tend to offer more open, digitally tailored services, while Korean libraries often face constraints in continuity and reach. The study proposes several improvement strategies: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policies and institutional support at the governmental level; the development of shared resources and digital platforms among libraries; and the design and promotion of customized programs tailored to regional needs.

키워드: 국립대학 도서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개방, 지역주민 이용자 서비스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community engagement, library service development, opening  
community, external users

\* 이 논문은 2024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도서관 사서(kygo@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ongwook@k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5년 5월 22일 ■ 최초심사일자: 2025년 6월 10일 ■ 게재확정일자: 2025년 6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42(2), 205-228,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2.20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대학은 인격 함양과 더불어 학문적 이론과 그 응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통해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고등교육법, 2023). 과거의 대학은 내적인 발전만을 도모하며 대학생들이 교육받는 곳, 교수들의 연구 활동과 교수 활동을 하기 위한 대학 구성원들만의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정희선, 2015). 그러나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와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의 도래는 대학으로 하여금 기존의 기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단순한 교육 제공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도서관 역시 단순한 자료 제공 공간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로 지정되어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체계화하여 기록한 도서와 논문, 정보자원 등을 수집하고 조직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재적소에 제공한다(장덕현, 2017). 이와 함께, 여러 지역 대학의 도서관은 연구지원 서비스, 워크숍, 강연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에게 정보자원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학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장우권, 2009; 정희선, 2015).

과거 대학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의 연구 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지역주민, 졸업생, 외부 연구자 등 간접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소장 자원으로의 동등한 접근과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자료 이용 및 시설개방, 인문학 강좌와 문화 프로그램 제공, 독서 모임 운영,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또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조윤희, 2007). 이러한 변화는 대학도서관이 단순한 학내 지원 기관을 넘어, 지식사회 지식 기반 형성과 개방적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선이, 김윤섭, 2011).

지역사회에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로는 90년대 말 고성순(1999)이 개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한 것을 비롯하여 개방 사례와 현황을 살펴본 연구(송영희, 2001; 정병진, 2001), 지역주민에 대한 학술 정보자원 공유와 개방 현황을 다룬 연구(박숙경, 2002; 이범준, 2003; 양정은, 2005),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만족도 조사(장우권, 2009; 박나원 외, 2015) 등이 주를 이루었다. 종합하면, 국내에서는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으나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개방을 포함한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개방을 비롯한 지역

사회 연계서비스 현황과 더불어 문제점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그들이 수준 높은 정보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특히 중요한 국내 국립대학과 북미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대학도서관 담당자와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연계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개념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지역사회와 대학도서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는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 또는 협력 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ALA, 2024). ALA는 지역사회 내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며, 도서관이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는 단순한 개방과 구별된다. 개방이 도서관

자원과 공간을 외부 이용자에게 물리적으로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수동적 행위에 그치는 반면, 연계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미국대학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이하 ACRL)는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ACRL의 「ACRL Statement on Community Engagement」(2022)에 따르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뉜다. 첫째, 지역의 역사와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연구·활용함으로써 기관의 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도서관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도서 대출, 평생학습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화행사 및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다양한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학 구성원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 학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병진(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이나 관리자들의 개방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용 대상을 학내 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풍부한 정보 자원을 보유한 대학의 개방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학도서관은 더 이상 폐쇄적인 학습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개방형 러닝 커먼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홍대신문, 2023).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설, 공개강좌 운영, 공동연구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통해 이용대상을 지역주민으로 넓히고 있다.

최근 대학도서관의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는 열람실 개방, 관외 대출, 소장 자료 열람과 같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시회, 작가 초청 강연회, 이용 안내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시행하여 능동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정희선, 2015). 이와 같은 서비스 확대는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정보 자원, 첨단 시설,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보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장우권, 2009). 나아가 지역사회 개방은 도서관이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자료의 이용률을 높이며, 동시에 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유로 대학도서관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 2.2 관련 연구

### 2.2.1 지역사회 연계 현황 분석 연구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기관과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장우권, 2009). 먼저 진창남(2002)은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설문을 통해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 결과, 주민들이 대학도서관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로는 자료 훼손·분실, 반납 곤란, 직원 업무량 증가, 열람 공간 부족,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있었다. 또한, 자료 관리 문제와 업무량 과다도 개방 기피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장우권(2009)은 대학도서관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지식 정보 자원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필요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적·제도적 규정 부족, 서비스 미흡,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류 확대, 이용자 교육, 서비스 기준 마련, 법적 규정 보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대근과 사공복희(2010) 역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며, 'A' 대학도서관 사례를 통해 이용증 발급 및 해지의 빈도, 짧은 이용 기간, 업무 부담 증가, 자료 이용의 편중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회원제 도입, 역할 분담, 이용자 교육 강화, 출입 관리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방에 앞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연구로는 Schneider(2001)가 지방 소규모 대학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력 프로젝트, 학생 및 노년층 대상 도서 프로그램,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Buchansky(2021)는 온타리오 지역 21개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지역 학교 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이 지역 학교들과 협력하여 정보 활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2.2.2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대학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는 도서관 인프라 개방 및 공유 측면을 다룬 연구(이시영, 2001), 프로그램 제공 측면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 연구(문지윤, 2008), 협업 방안을 모색한 연구(김선이, 김운섭,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시영(2001)은 대학도서관이 지역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 자료 훼손 우려,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전면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시영은 지역사회 개방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해당국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지윤(2008)은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복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이용자 간 소통을 촉진하고, 휴식과 여가 활동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영선(2015)은 국립대학 도서관이 문화 콘텐츠 허브로서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관 간 협업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김선이와 김운섭(2011)은 서울·경기지역 4년제 대학도서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방안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 예로는 대학도서관의 전문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 공동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활용 워크숍 운영, 공동 행사 및 전시 개최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보유한 고급 정보자원과 우수한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에서는 Courtney(2001)의 지역사회 주민의 개방 요구를 다룬 논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중에 따른 연계 전략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ourtney(2001)는 대학이 보유한 전자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분석하면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점차 확대되었으나, 1980~90년대 정보 수요 증가와 기술의 발달로 외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이용 정책 수립 시 지역주민의 전자자료 접근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Bangani(2023)는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학교 및 공공도서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향토자료를 선별·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이 지역사회 참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의 연구는 대학도서관

관 개방에 따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도서관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필요성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한 탐구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출입 제도, 열람 시설 개방, 관외 대출 허용 등 학술 정보자원의 공유 및 개방 현황에 대한 분석과 지역주민의 이용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 개방 수준과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으나, 최신 서비스 내용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설립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수혜 기관인 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대학 도서관이 시행 중인 지역주민 연계 서비스 및 운영 동향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서비스 담당자 면담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국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사례조사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도서관보’에 수록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공립대학 10개교(강원대, 경북대, 군산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 특정 지역이나 규모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 대학의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위하여 북미의 대학도서관 가운데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의 Statistics Investment Index 2021-2022에서 높은 투자 수준을 보인 도서관과 QS 세계 대학 랭킹(Quacquarelli Symonds World University Rankings) Library & Information Management 분야의 2023년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표 1〉 참고).

〈표 1〉 북미 10개 주립대학

연번	대학명	영어명	약칭
1	버지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Virginia	UVa
2	미시간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	UMich
3	오하이오주립대학교	The Ohio State University	OSU
4	일리노이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IUC
5	워싱턴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UW
6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7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B
8	텍사스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T
9	토론토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	UofT
10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SU

사례는 각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지역사회’, ‘주민’, ‘협력’, ‘개방’, ‘Community’, ‘Local’, ‘Engagement’, ‘Linkage’, ‘Region’와 같은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김선이, 김윤섭, 2011; 김홍렬, 2004)를 참고하여 네 가지 서비스 영역 즉, 1) 시설 및 자료 이용, 2) 교육 및 학습지원, 3) 문화행사, 4) 기관 협력 및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2〉 참고). 먼저, 시설 및 자료 이용은 주민 복지를 위해 열람실, 컴퓨터실과 같은 공간과 도서 및 전자저널 등의 자료 제공을 의미한다. 교육 및 학습 지원은 지역주민의 지식과 기술 향상을 돕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DB 활용 교육, 글쓰기 강좌, 연구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문화행사는 작가와의 만남, 문학 강연, 영화 상영회, 전시회 등과 같이 인문소양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활동이다. 기관 협력 및 파트너십은 지역 학교, 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 3.2 면담조사

### 3.2.1 면담 참여자 선정

면담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국립대학 도서관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파악하였다. 이후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의 담당 업무를 확인하였으며,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운영’, ‘이용자서비스’, ‘도서관 교류 협력’, ‘지역주민 회원제 운영’과 같이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 참여를 요청하였다. 면담 요청에 응한 사서를 대상으로 대면 및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여덟 번째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면담자 섭외를 중단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전국 8개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 도서관에 근무 중인 사서들로, 이들에 대한 배경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3.2.2 면담 개요 및 면담지 구성

면담자 참여자들에게 면담 진행 전에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면담은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문헌정보학 분야 대학도서관 지역사회

〈표 2〉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유형

유형	정의	사례
시설 및 자료 이용	도서관 내 공간과 소장자료를 이용하는 것	시설 이용, 도서 및 자료 대출 등
교육 및 학습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의 학습활동 지원	문해교육, 지역사회 연구지원 등
문화 행사	도서관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적 활동	강연회·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등
기관협력 및 파트너십	타 기관과 자원,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고 협력	지역기관과의 협력, 공동 프로젝트 등

〈표 3〉 면담 참여자 정보

참여자	인터뷰 방식	성별	연령대	업무경력	담당업무
P1	대면	남	40대	9년	정보서비스 업무
P2	대면	남	40대	18년	기획 및 홍보
P3	비대면	여	30대	12년	학술정보 기획
P4	비대면	여	30대	10년	학술연구 지원
P5	대면	남	30대	12년	자료 운영
P6	대면	여	30대	8년	기획 및 홍보
P7	대면	여	40대	17년	기획 및 홍보
P8	대면	남	30대	11년	기획 및 홍보

〈표 4〉 면담 내용 구성

영역	세부 내용
서비스 현황 및 제도	현행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종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관련 규정 및 규칙
서비스 운영 및 실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활용하는 자료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신분별 의견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이용자 인식 및 만족도	타대학 우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도입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개선 방안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지원 방법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의견

연계 관련 선행연구(장우권, 2009; 정대근, 사공복희, 2010; 진창남, 2002)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후 면담 항목과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 박사급 연구자의 검토를 받았으며,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수행해 온 대학도서관 중견 사서들의 추가 검토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에 맞게 면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구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표 4〉와 같이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뉜다.

3.2.3 면담 내용 분석

면담 내용 분석에는 질적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복적 비교(Constant Comparison)를 통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연구자는 Lumivero社의 NViv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면담 내용에 대한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코딩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문장 및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총 252개의 코드를 추출하였다. 그 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되는 코드를 병합하였으며, 개별 코드들의 의미를 상위 주제로 묶는 과정을 거쳐 코드북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합이 가능한 코드는 합쳤으며, 의미가 상이한 코드들은 분리하여 2차 코딩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



〈표 5〉 면담 내용 코드북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전반적인 인식 필요성	
2	지역사회와의 연계 영역	교육적 지원 문화 활동 디지털 접근성 협력과 파트너십	
3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운영 방안	문제점 개선 사항	예산 및 인력 부족 지역주민 이용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부정적 인식 지침 및 자료 부재 예산 및 인력 지원 협력 네트워크 형성 가이드라인 제작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각 코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고,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도출된 코드북은 다음 〈표 5〉와 같다.

## 4. 연구결과

### 4.1 사례 분석 결과

#### 4.1.1 국내 사례

국내 주요 국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운영 실태를 각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그 형태는 시설 및 자료 이용, 교육 및 학습 지원, 문화 행사, 기관협력 파트너십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범주별 주요 운영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 및 자료이용 범주에서는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도서관

회원증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 대출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도서관 증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개방 공간을 조성하고 있었다. 경북대는 상주 캠퍼스 도서관에 ‘시민의 방’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독서 및 휴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대는 ‘아우름’이라는 이름의 개방 공간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었다. 영상정보실과 같은 내부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대는 ‘백령 시네마’를 통해 상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충북대는 ‘수요 개신시네마’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역주민의 도서관 대출 권수와 기간이 재학생에 비해 제한되며,

일부 열람 시설의 이용 또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소장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및 학습 지원 서비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서울대, 제주대 등은 지역 관련 귀중본을 수집하고 이를 전시하는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대 ‘박완서 아카이브’, 제주대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군산대와 충북대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별 컬렉션, 사서 추천도서, 서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독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대와 전북대에서는 교내 구성원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법 및 학술정보 활용법을 교육하는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대, 군산대, 충남대는 지역주민이 글쓰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작 중심 프로그램도 제공함으로써 참여형 자료 활용의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었다. 전시, 독서 모임, 영화 상영, 음악 프로그램 등 도서 관련 행사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지역 학생들을 초청하여 ‘지역사회 고교생 체험 캠프’라는 도서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산대는 ‘책과 함께, 군산문화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주제 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직 교수 또는 작가를 초청한 강연회, 전시회 등은 대학이

라는 기관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학도서관과 지역기관 간 협력은 연구 협력과 문화 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 협력의 경우, 경북대, 서울대, 부산대는 지역 내 연구소, 과학관, 박물관은 물론 해외기관(대학교서관·국가도서관 등)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대차 및 자료수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연구 기반 강화 및 학술정보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 협력의 경우, 전남대는 지자체, 공공도서관, 작가 협회 등과 연계하여 ‘광주·전남이 읽고 푹하다’라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특강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 4.1.2 북미 사례

북미 주요 주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운영 실태는 국내 사례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설 및 자료 이용, 교육 및 학습 지원, 문화 행사, 기관협력 및 파트너십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범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북미 대학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증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람실, 미디어실, 스튜디오 등 도서관 내 주요 시설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다. UVa, OSU, UofT, UT, PSU와 같은 대학에서는 지역 K-12 교사를 대상으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UofT와 UW는 미성년자에게도 보호자를 통한 이용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UVa의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용 컴퓨터와 스튜디오 공간(Media Recording Studio)을 별도로 설치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 및 학습지원 분야에서는 도서관의 학술 자료 및 지역 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UCLA, OSU, UofT, UT, PSU, UCB, UMich 등의 도서관은 지역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범위는 문헌에 국한되지 않고 건축물, 사진, 지역신문, 주요 연설문, 사건 기록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지역의 기록관,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공동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UofT의 경우, 'Old Books New Science Lab'과 연계하여 도서 보존, 연구데이터 관리, 번역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료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UT와 UW는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UIUC는 'A Human Library'를 통해 인종, 계급, 사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정보 수집 및 공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지식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 행사의 경우, 지역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UCLA, UVa, OSU, UIUC, UT, PSU, UW 등은 지역사회 관련 보존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시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으며, UCLA, UMich, UCB는 도서관 보존실을 개방하여 일반 이용자가 자료 보존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SU는 'Collaboration Common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서 주도의 강연을 통해 도

서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교육적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WU는 재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및 서비스 소개 프로그램인 'Insights from Going Public'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기관 간 협력 영역에서는 UCLA, OSU, UIUC, UCB와 같이 대학본부 내 지역사회 연계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UCLA, OSU, UT, PSU, UCB 등 많은 도서관은 지역 내 대학교서관, 공공도서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UIUC는 일리노이주 9개 연구도서관 연합체인 CARLI(Consortium of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in Illinois)와 같이 협력하여 'I-Share'라는 통합 카탈로그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는 지역 기반 정보 공유와 상호대차를 활성화하는 주요 사례이다. 또한, UMich에서는 지역 재단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UCLA에서는 'CDL(California Digital Library)'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 의견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UV, UT와 같은 일부 대학교서관은 타 유형의 도서관과의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자원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1.3 사례 비교 분석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주립대학교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사례를 국내 국립대학 도서관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 지역의 주립대학 도서관은 시설

및 자료 이용 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개방성을 보이며, 전자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관 자원을 일반 주민에게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 대상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먼 라이브러리나 같은 특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교육적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 국립대학 도서관은 자료 대출 및 열람실 이용에 있어 회원제 기반의 제한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나 학술자원 제공 역시 대학 구성원의 학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능은 북미 대학도서관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교육 및 학습지원 영역에서는 국내와 북미 모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워크숍, 문해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워크숍,

지역 작가 지원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북미 주립대학 도서관은 특히 AI 기반 자료 제공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 국립대학 도서관은 기본적인 이용 교육이나 독서 중심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글쓰기 프로그램과 지역 독서 동아리 운영과 같은 사례가 있지만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화행사를 비교해 보면 국내 국립대학에서도 지역기관, 대학 내 타 기관과의 공동주최 프로그램이 많아져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행사에 치중하고 있어, 온라인 강연과 디지털 전시 등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넷째, 기관협력 파트너십 부분에서 북미의 경우, 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원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기반 지역 공공기관, 기업, NGO와의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표 6〉 국내와 북미 주요 대학도서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비교 요약

서비스 유형	국내 국립대학 도서관	북미 주립대학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의 전자 자원 이용 제한</li> <li>자료 대출 및 열람실 개방 등 회원제 위주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자원 포함 다양한 도서관 정보자원 개방</li> <li>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ex. 휴먼라이브러리)</li> </ul>
교육 및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내 구성원 위주의 교육 및 학습지원</li> <li>도서와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AI기반 자료 추천제공</li> <li>계층별 맞춤형 워크숍 개최</li> </ul>
문화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 문화행사에 치중</li> <li>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학술강연 및 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와 강연회</li> <li>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중심</li> </ul>
기관협력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회성 협력 프로젝트 위주</li> <li>도서관 외 지역 협력기관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및 민간 후원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li> <li>지역사회 이용자의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공청회 개최</li> </ul>

한 자원 공유와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독립적이거나 일시적인 협력에 의한 단발성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서비스 다양성이 제한되고,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 4.2 면담 결과

### 4.2.1 연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면담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범위가 20여 년 전부터 시행된 도서관 개방에서 진화하여 현재는 상호대차, 문화행사, 연구지원까지 넓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대학도서관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P1, P3, P6, P7).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은 점점 입학생이 줄고,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국립대학 도서관으로서 책임, 역할을 다하라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서비스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P7)

한편, 대학도서관이 주요 책무인 대학 교육과 지원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P2, P10). 이는 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술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사회를 부차적인 관심사로 인식하여 일상적 자료나 실용적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지역에 책임을 다하고 공헌하기 위해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자들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과 달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였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만큼 사회적 역할 확대와 지역발전에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대학과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이미지 제고', '이용률 증가', '우수 인력 유입'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P1, P2, P4 P8).

지방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점이라고 느껴집니다. 교육부에서는 글로벌대학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살아남을 지방 대학 30개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은 지역사회와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P8)

이처럼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장래를 위해 유의미한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더욱이 '글로벌(Glocal 30)' 사업,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등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이 대학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연계서비스는 대학도서관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 전체의 사회

적 책임 실현, 지역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곧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4.2.2 지역사회와의 연계 영역

국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사회에 대한 '교육적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디지털 접근성 확대', '협력과 파트너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교육적 지원 영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연구와 학습 활동을 돕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교육 지원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참여자는 도서관 교육과 정보 활용 교육 등의 이용 교육을 대학구성원들에게만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리터러시 교육, 학술 DB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지역주민도 도서관 예절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개인 학습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학술적 자료 관련 이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 학교 소속 구성원에게만 이용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면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P3)

다음으로, 문화 활동 영역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여, 지

역사회의 창의적 환경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촉진하는 영역을 말한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단순히 정보와 지식의 거점 역할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와 문화적 상호 교류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면담 참여자들은 문화 활동 영역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임을 언급하였고, 그 이유로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기획이 쉽고 호응이 높은 편이라는 점이 있었다(P2, P3, P4, P7, P9). 또한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대학도서관을 친숙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P1, P6, P10).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로 문화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 지방은 약간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서관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실시하면 저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 곳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분야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문화 행사가 기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P6)

이러한 문화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대학도서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도서관의 역할 확장과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P2, P5).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는 도서관을 운영시간 내에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P2)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은 유관기관, 기업, 다른 유형의 도서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해지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학도서관의 영향력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참여자는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자원 절약과 정보 공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P6). 또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서관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면 지역사회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5, P7, P10).

대학도서관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다른 단체나 유사 기관과 협력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지역사회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P5)

#### 4.2.3 운영상 애로사항

모든 참여자는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예산 부족과 담당 인력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많은 국립대학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한 전용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한 채,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혹은 도서관 일반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비교적 충분한 대학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 간에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국립대학임에도 운영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도서관에 배정되는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서비스 계획이 달라지며, 예산이 축소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P4, P7, P8).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려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너무 빨리 '뒤편' 만들어 보자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서비스가 지속되기는 어려워요.(P4)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표출되는 점을 언급하였다(P1, P3, P5, P6, P9). 특히 도서관 자료나 열람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반응이 두드러졌으며, 일부 사서들조차 지역주민 이용자의 민원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도서관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대학 구성원의 연구 및 정보 습득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P1, P7, P10). 그리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 간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서비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다(P5).

학내 구성원의 생각은 아무래도 일반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함께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도서관은 학내 구성원을 위한 기관인데 왜 지역사회에 오픈을 해야 하는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서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많아지니까 불평, 불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P6)

서비스와 관련된 지침 및 참고 자료의 부족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는 지역주민 회원제도와 같은 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예규와 최소한의 준수사항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대학도서관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학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부로 개방하게 되면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네요. 특히, 이미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불만과 불평이 존재하는 상황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서로간의 갈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P5)

그리고 참여자들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획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해외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비전을 갖고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관련 규칙 정비 및 가이드라인 자료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계획 시) 활용하는 자료는 일단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는 사실 대학도서관에서는 익숙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는 하죠... 인근에 있는 공공도서관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같은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최하는지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5)

#### 4.2.4 연계서비스 개선방안

대다수의 참여자는 인력과 예산 문제 해결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운영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운용 자원이 확보되어야만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실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P1, P2, P3, P5, P6, P8, P10).

가장 먼저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이는 서비스 진행을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KERIS 차원에서나 교육부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거나 확대하려면 그에 합당한 공모사업과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P2)



대학도서관과 지역의 기관이 함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도모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예산 지원과 같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P2, P7).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7)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P1, P3, P4). 또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와 피드백을 다른 국립대학 도서관과 공유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보다 체계적인 연계서비스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P3).

도서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위한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로드맵에 맞춰 조직 구성도 바꿀 수 있고, 현재 수행중인 업무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력을 충원하거나 각 대학 도서관 실정에 맞는 체계가 갖춰질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시한다면 의사 결정도 빨라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P3)

## 5. 논의

국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지식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예산 및 인력의 부족, 대학 구성원의 반발, 명확한 운영 지침의 부재 등 다양한 제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사례 조사와 담당 사서들의 면담을 바탕으로 연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도적, 시스템적, 운영 및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 5.1 제도적 측면

제도적 개선에는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범정부기관의 정책, 행정 절차, 조직 구조 개편, 그리고 대학도서관별 지침 및 이용자 제도 정비가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미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지역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 ‘비전’, ‘중장기 도서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론토대(UofT)는 장기적 목표를 담은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접근성 확대, 정보 및 학습 제공, 지역 공동 프로그램 개발, MOU 체결, 성과 평가 및 피드백 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기반한 전략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도 규정, 운영세칙, 이용자 지침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남대 도서관의 '광주·전남이 읽고 푹 하다'와 같이, 연간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운영 기반과 재정·인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KERIS와 같은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 운영 지침과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 정부, 지자체, 학술 기관의 재정 및 운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인력 확대 및 독립된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면담 결과, 해당 서비스는 대부분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전담 TF팀 신설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국립대학 육성사업 또는 도서관 자체 예산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증가하는 지역사회 관련 사업의 중요도 및 역할을 반영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신규 서비스 개발뿐 아니라 담당자의 책임 의식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담당 사서를 위한 교육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실제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사서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수반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단순히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W는 지역사회 사서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UIUC와 UMich,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역 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등은 타 도서관 사서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서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5.2 시스템적 측면

시스템 개선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국립 대학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다

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디지털화, 상호작용 채널 강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도서관과 맞춤형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 과정을 통해 콘텐츠 보강이 가능하고 다채로운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기관 협력 및 지원 체계는 이벤트성 문화 행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 및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협력 구조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지원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서점 등 다양한 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맞춰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남대 도서관은 2013년부터 광주·전남 지역 대학도서관,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광역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나의 사업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보와 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IUC에서는 90여 개 대학·공공·연구 도서관 간 자원 공유 시스템인 'I-Share' 카탈로그를 통해 자료 검색과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UT는 'TexShare DB'에 참여해 지역 내 학술 및 공공도서관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적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도서관이 2022년에 구축한 지식 빅데이터 플랫폼 'LikeSNU'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독서, 연구,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대학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개별 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공유하는 방식은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학 및 지역 기관 간의 벤치마킹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면담조사 결과, 담당사서들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대학도서관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요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5.3 운영 및 서비스 측면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은 기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도서관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정보 자원의 환원이라는 책무를 지닌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교육 및 전시를 통해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북미 주립대학(UCLA, UVa, OSU, UIUC, UT, PSU, UW)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견학 및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서울대는 ‘박완서 아카이브’와 같이 한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작가의 기록을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라키비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대는 제주학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제주학 아카이브’와 ‘제주 자료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민의 연령, 계층,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면담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갈등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SU에서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도서관 런치 북클럽’을 통해 토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 대학 구성원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상호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의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 면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이 다양한 지역 대상 서비스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 구성원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홈페이지나 공문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서비스 계획, 이용가능한 시설 및 자료, 프로그램 정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등을 한눈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이용자 반응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6. 결 론

최근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확산하

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 도서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과의 협력에서 더욱 중요한 책임을 가진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한 시설 개방을 넘어, 지역의 사회·문화·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사회 역시 대학의 공유한 기능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 인식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서비스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의 운영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현재 국립대학 도서관은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지역 수요에 기반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연

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적 기반 마련과 재정·인력 확충, 정책 정비, 사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맞춤형 협력 모델 구축, 디지털 플랫폼 활용, 피드백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운영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서비스 개발,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 강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로 대도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사례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기에 지방 소도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에 있어 북미 대학에만 한정하여 다른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과 국가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국립대학 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지역의 정보 접근성 확대, 평생학습 지원, 지식 공유 등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지역과의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등교육법, 법률 제18989호.
- 고성순 (1999).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선이, 김윤섭 (2011). 학습기능의 중심축으로서 대학도서관 개방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11-26.
- 김영선 (2017). 문화콘텐츠 허브로서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홍렬 (2004).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

- 보학회지, 35(4), 339-360.
- 문지윤 (2008). 미술문화공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나원, 여지숙, 오동근 (2015). 대구지역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서비스 현황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2, 131-134.
- 박숙경 (2002). 대학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송영희 (2001).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449-466.
- 양정은 (2005).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이범준 (2003). 지역사회 주민의 대학도서관 이용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시영 (2001).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에 관한 일고. 사대도협회지, 2, 167-175.
- 장덕현 (2017). 국내 대학교 도서관발전계획의 효용성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13-230.  
<http://doi.org/10.4275/KSLIS.2019.53.4.213>
- 장우권 (2009).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연대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3-45. <https://doi.org/10.16981/kliiss.40.1.200903.23>
- 정대근, 사공복희 (2010). 대학도서관외부이용자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269-293. <https://doi.org/10.16981/kliiss.41.4.201012.269>
- 정병진 (200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395-418.
- 정희선 (2015). 대학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조윤희 (2007).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289-305.
- 진창남 (2002).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대신문 (2023. 09. 26.). 대학도서관이 바뀌고 있다 [오피니언].  
출처: <https://hiupress.hongik.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4).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22). ACRL Statement on Academic Freedom.  
Available: <https://www.ala.org/acrl/standards/academicfreedom>
- Bangani, S. (2023). Academic libraries' support for quality education through community engagement. Information Development, 40(4), 590-601. <https://doi.org/10.1177/026666669231152862>
- Buchansky, H. (2021). Connections beyond campus: Ontraio university library outreach programs for high schools. The Canad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and Research,

- 16(1), 1-24. <https://doi.org/10.21083/partnership.v16i1.5770>
- Courtney, N. (2001). Babarians at the gats: A half-century of unaffiliated users in academic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6), 473-480.  
[https://doi.org/10.1016/S0099-1333\(01\)00260-9](https://doi.org/10.1016/S0099-1333(01)00260-9)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alifornia: Sociology Press.
- Schneider, A. & Tina, S. (2001). The regional campus library and service to the public.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2), 312-321.  
[https://doi.org/10.1016/S0099-1333\(00\)00184-1](https://doi.org/10.1016/S0099-1333(00)00184-1)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2017). Perceived effects and tasks of library strategic plans of universit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4), 213-230.  
<http://doi.org/10.4275/KSLIS.2019.53.4.213>
- Chang, Wookwon (2009). A study on the community solidarity and services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23-45.  
<https://doi.org/10.16981/kliss.40.1.200903.23>
- Cho, Yoonhee (2007). A study on social responsibility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289-305.
- Hongik University Press (2023). University libraries are changing [Opinion]. Available:  
<https://hiupress.hongik.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3>
- Jeong, Byeongjin (2001). A study on the extention of academic libraries for local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4), 395-418.
- Jeong, Daekeun & Sakong, Bokhee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ternal user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269-293.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269>
- Jeong, Heesun (2015) A Study on the Extension of Local Community of University Librari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Jin, Changnam (2002). How to Link University Libraries to Their Communities.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 Kim, Hongryul (2004). A study on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for

-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339-360.
- Kim, Sunyi & Kim, Yoon-Seob (2011). A plan for opening the university libraries as the central axis of learning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bliography*, 22(1), 11-26.
- Kim, Youngsun (2014). Functions and Roles of University Library as Cultural Contents Hub.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Ko, Seongsoon (1999). A Study on the Extension of University Libraries to Communities.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Lee, Beomjoon (2003). A Study on the Community Residents' Usability and Satisfaction in Academic Librarie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Siyoung (2001). A Study on the Community Access to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 Moon, Jiyeon (2008). Study on Stimulation of Regions Through Art & Cultural Spaces.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 Park, Nawon, Yeo, Jisook, & Oh, Donggeun (2015).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extension services to the communities of university libraries in Daeg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 131-134.
- Park, Sookkyung (2002).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Local Users with Open University Librarie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Song, Younghee (2001). A study on the external user service system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3), 449-466.
- The Higher Education Act, Law no. 17492.
- Yang, Jungeun (2005). A Study on the Extension Status to Communities and Activation Plan in Korea Academic Libraries.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